

곽씨세덕가문나라



[해제]

<곽씨세덕가문이라>는 두루마리에 필사된 한글가사로 작자와 창작연대는 알 수 없다. 며느리의 죽음을 슬퍼하는 시어머니의 노래로 규방가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화자는 어린 자식을 길러내어 명문가의 딸과 혼인을 시켰으나 혼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며느리가 병을 얻어 죽게 되었다. 혼인하자마자 아내를 잃은 화자의 자식을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딸을 저승으로 보내야하는 사돈댁의 심정, 그리고 어여쁜 며느리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이별해야 하는 시어머니의 정회(情懷)를 잘 담아낸 작품이다.

[원문]

곽씨세덕가문니라

세송을 오심이 ㅅ이십일의요 익시모락시난
두어줄글 다너박 지전으로 통공누
연연하왈 오호토직의 오호익지라
박명한 니의원정 누을항히 설화할고
괴음연 출팔월의 어의죽구 별시하니
청천이 뭉어지고 빅일리 빗치업다
이딛지 모진목숨 어그리 못죽던고
솔마음 업건만은 부모임 괴시잇고
죽을쓰지 만컨만은 어린조식 어이할고
이조식 갈너니여 뒤영화 불야하고
존명을 보전하고 제일신에 의탁턴이
당음이 유수갓고 세월이 약이되야
무무한 이조식을 헐헐리 길너니야
영광이 십오세라 고문명족 갈리니여
어진빅필 구하던이 요쵸한 너일신이
천정빅필 적실하다 초헝치송 하난날에
일히일빅 하여시딛 잇회포촉 마◆고
길근마음 식로난다
세송에 업난일을 나호조 맛난다시
남녀하임 조량하고 인지야 니조식을
거억성치 하여 시이 인간의 괴한일리
이밭새 쏘잇던가 치송한 그날부텀
마ㅅ건딛 육례을 갓초하고 심일을 지닌후의
물이 회정하괴 고딛딛 하엿든이
방정한 그명일의 무심히 아ㅅ시이
호련이 다치거날 암죽놀니 니달나서
손을잡고 무러보이 미지한 이조식이
주저주저 잘못한다 시부임씨 무스후오
이에속한 모진병이 제몸의 드러시미

납치난 흥여되 초리난 못하였다
이말숨 드려후의 셩셩하기 친양었다
너의부모 마음인들 오직셩셩 하시올가
애속하다 이병이야 다련날 만컨마난
구타여 굿씩들러 인간딛스 그러치나
비나이다 하늘임아 바릭난이 하늘임아
헌철한 우리조부 병식을 감히주소
하로잇틀 완소되야 다시청키 바릭든이
게우바릭든 숨스일의 악소식이 들니거날
전지도 지니달으 이네어일 적실하다
꿈인가 슬피봄이 적실히 꿈이 안이요
싱신가 슬피보이 이른변이 쏘이실손야
애속하다 하늘임아 무정하다 저괴신이야
평생히로 조큰만은 무타여 이를진틴
일이숨만 초마시면 내와나와 칭면하고
우리양가 원통함을 일분이나 감할거설
쳐도도 무심하고 괴신도 영약하다
흘어난 이눈물에 유혈리 송반이요
못난이 말소히난 우렴이 반치로다
세승부부 인간지 딛룬이라
어엿분 닉조식아 뉘을한히 통곡하노
제손을 네가좁고 너손을 제가좁고
마조안조 원통한 구타여 이를진틴
병침의 들려가서 칭면이나 하시마은
남은날리 만하여 나얼린 소치로다
닉덕이 열뉘무로 네명이 절너난가
절동하다 닉집화를 네가엇지 입어난고
반죽강 석근비난 아황연영 눈물리요
곡구으문 발근달은 셔낭으 회피로다
이거시이 그려할지 죽은흔은 오죽할가
구천의 더러가서 염왕전의 솔바모지
아무리 염왕인들 그딛지 역약할가
수유바다 도라와셔 한번칭면 하고가지
실푸다 칭전스후 다르고 다르도다
부부유별 지별조를 분별별썩 아라든이
인지야 적거본이 이별별썩 적실하다
오호 익지라 절통코 분한마음
네익수적 보랴하고 신흔복식 닉여보이

철천한 네의한은 실실리 믹쳐잇고
반반한 너의눈물은 폭폭이 흘러난다
너업난 너의집에 너즈식 지헝가든
청천이 턱도난 요조차 간딤업고
염외에 식소식은 연주가 나라든다
동방화축 업셔시이 지헝간들 너가아고
지헝이 문승되고 숨헝이 바구로다
어여쁜 너즈식아 지헝숨헝 단인후에
신헝이 법례어날 통분하다 너즈식아
반구일즈 무숨일고 실푸다 우리스돈씩
통곡쳐랑 하시올지 동망에 부난바람
우리스돈 한숨이요 서방의 문난비난
우리스돈 눈물리라 오호위직
네얼골 너모르이 시모줄 어이알며
즈부줄 어이아리 헝이난 못하여도
납치난 하여시니 너미나리 적실하고
지빅필리 적 영하다 조흔손지 갈리니고
어진날 갈리바다 분물로 명정씨고
모단으로 화려집고 명주비단 빅골싸서
화례에 구지실고 도라올지 우리스돈
마음이들 오직통분 하시올가 통곡하며
하난말숨 시송스람 무죽하다
손즈식 신헝갈지 우름은 무숨일고
죽은즈식 신헝할지 싸라죽지 못하로다
어엿분 너즈식아 날바리고 어딴가노
손천초목 바리보이 봄을싸라 가건마은
불승한 너즈식은 인지가면 언지올고
염총강이 쓴어지고 방익손이 문어진들
이니회포 쓴어질야 오호석제라
어엿분다 너마음의 신헝인가 바릭든이
정마소리 간딤업고 ㅁ이소리 무숨일고
그소릭 한마되익 강산이 적 막하고
초목이 소실하다 어엿분 너즈식이
제복입고 통곡하며 너네익되에 싸라오며
북망손천 도라든이 의지업시 우난익신
너을보고 부려한다 일후의 너즈식이
명문에 취쳐하야 빅즈천손 너은다시
네은다시 네무덤의 축일르고 제지니며

스후복이 이안인가
오날날 정영네세부 볼거시이 원통한네
예정곡 설설리 다한후에
박복한 닌의설름 절절리 다하여라
집압픽 가난너을 춤아저저 못보닉셔
두어줄글다 일천줄긔 눈물로셔 네의영혼
위로하고 닌의셔름 풀치고셔 디강만
거록하여 시이싱시 유명이 이실진틴
아난야 모로난야 오호통지
흠스 아무라도 이걸보고 뵈지 마옵소서
우리쌀닉 말조 十七곱이 方이서노던
싱각하이 마암이 울적 하나이다
정월은 링춘초춘 이월은 중춘화춘
삼월은 만춘모춘 스월은 초하남풍
지절리라 화락지절 오월은 초복이잉지절
유월은 여천중복 칠월은 초추소유지절
팔월은 중추 가절리라 싱양지절
구월은 모추 천고마비지절 오곡이 등풍
십월은 초동 십이월은 납한설하을
빅별지후로 지우검일 조송서치 못하와
호점의 직송송 만만 이로소이다
건미심스 시잉춘알이 불화온초 시익너어
작별지후로 우존인 아득하고 초수오존이
가로막혀 청조가 싸어지고 수하의 노조업서
이만 서신으로 진작날여 서로
반기지 못하이 참기기 하어이나
자시일기 심히춌운디 밤을싸라 창외
삼보트이 월식은 명낭하야 오동의
두건우려 심스 돌디업서 월궁의
나련학은 나라조타 나도날기 이시며
나라가서 보며 을마나 조캐노
一서쪽디초밤건시빅넘검유과
二서쪽 육탕복어피문어가오리함조도적물이어적
三서쪽 고소리도릭공기음미나리
四서쪽 건어시첩기기형조반편
五서쪽 술술탕반탕반조보님싱신은
치월초여드리날조모싱신은삼월초손날
밭어버이싱신은유월十三일안어버이싱

곽씨세덕가문니라

신은시월초열날노변니선조종우

암선칭동춘선칭두사람이라조선익서

[현대역]

곽씨세덕가문이라

세상(世上)을 오심이 월이십일이요 애시 모르시는

두어줄글 (해석 불가) 지전(紙錢)1으로 통곡(痛哭)후

연연(戀戀)하여 왈(曰) 오호통재(嗚呼痛哉)2에 오호애재(嗚呼哀哉)3라

박명(薄命)4한 나의 원정(原情)5 누구를 향해 설화할꼬

기유년(己酉年) 칠팔월(七八月)에 어이 자꾸 별시(別時)6하니

청천(靑天)7이 무너지고 백일(百日) 동안 빛이 없다

이다지도 모진 목숨 어찌 그리 못 죽던고

살 마음 없지만 부모님이 계시었고

죽을 때가 맞지만 어린 자식은 어이 할꼬

이 자식을 길러 내어 대영화(大榮華)를 보려하고

잔명(殘命)8을 보전(保全)하고 제일신(第一神)에 의탁(依託)하더니

당음이 유수(流水)같고 세월(歲月)이 약(藥)이 되어

무무(瞿瞿)9한 이 자식을 혈혈(子子)이 길러내어

연광(年光)10이 십오세(十五歲)라 고문명족(高門名族)11 가려내어

어진 배필(配匹) 구하더니 요조(窈窕)한 너의 일신(一身)이

천정배필(天定配匹)12 적실(的實)13하다 초행(醮行)14 치송(治送)15 하는 날에

일희일비(一喜一悲)16 하였으되 이 때 포차 (해석 불가)

길근 마음 새로 난다

세상에 없는 임을 나 혼자 만난 듯이

남녀하임 자랑하고 이제야 내 자식을

겨우 성치하였으니 인간의 괴이한 일이

이 밖에 또 있든가 치송(治送)한 그날부터

(해석 불가) 육례(六禮)17를 갖추어서 십일(十日)을 지낸 후에

물이 회정하기 고대대 하였더니

방정한 그 명일(明日)에 무심히 (해석 불가)

홀연히 다치거늘 깜짝 놀라 내달아서

손을 잡고 물어보니 미지(未知)한 이 자식이

주저주저 말 못한다 시부(媿父)님18이 무사하오

이에 속한 모진 병이 제 몸에 들었음에

납채(納采)19는 하여도 초리는 못하였다

이 말씀 드린 후에 섭섭하기 측량(測量)없다

너의 부모 마음인들 오죽 섭섭하시올까

애석(哀惜)하다 이 병이야 다른 날 많건만은

구태여 그 때 들러 인간대사(人間大事)20 그르치나

비나이다 하느님아 바라나니 하느님아

현철(賢哲)21한 우리 자부(子婦)22 병색(病色)23을 감해주소
하루 이틀 만에 완전히 소생함을 다시 청하기를 바라더니
겨우 바라던 삼사일(三四日)에 악소식(惡消息)이 들리거늘
전지도 지내 다르니 내 어이 적실(的實)하다
꿈인가 살펴보니 적실(的實)히 꿈이 아니요
생시(生時)인가 살펴보니 이런 변(變)이 또 있을 소나
애석(哀惜)하다 하느님아 무정(無情)하다 저 귀신(鬼神)이여
평생 해로(偕老)24 좋건만은 무엇하여 이를 진댄
일이삼일(一二三日)만 참았으면 나와 내가 생면(生面)25하고
우리 양가(兩家) 원통(冤痛)함을 일분(一分)이나 감할 것을
쳐도도 무심(無心)하고 귀신(鬼神)도 영악(獍惡)26하다
흘러내리는 이 눈물에 유혈(流血)이 상반(相半)27이요
묻는 이 말소리에는 울음이 반(半)이로다
세상부부(世上夫婦) 인간지대륜(人間之大倫)이라
어여쁜 내 자식이 누구를 한(恨)해 통곡(痛哭) 하노
제 손을 네가 잡고 네 손을 제가 잡고
마주 앉아 원통(冤痛)한데 구태여 이를 진데
병침(病寢)28에 들어가서 생면(生面)이나 하시면
남은 날이 많아서 나이 어린 소치(所致)29로다
내 덕이 열부모로 네 명이 절로 나는가
절통(切痛)하다 내 겁화(劫火)30를 네가 어찌 입었는고
반죽강 섞은 비31는 아황여영(娥皇女英)32의 눈물이요
(해석 불가) 밝은 달은 서낭의 회피로다
이것이 그러할진데 죽은 혼은 오죽할까
구천(九天)에 들어가서 염라왕(閻羅王) 앞에 살바모지
아무리 염라왕(閻羅王)인들 그다지도 영악(獍惡)할까
수유(受由)33 받아 돌아와서 한번 생면(生面) 하고 가지
슬프다 생전사후(生前死後) 다르고 다르도다
부부유별(夫婦有別)34 이 별(別) 자(字)를 분별(分別) 별(別) 자(字)라고 알았더니
이제야 적어보니 이별(離別) 별(別)자 적실(的實)하다
오호애재(嗚呼哀哉)라 절통(切痛)하고 분한 마음
너의 수적 보려하고 신혼복색(新婚服色) 내어보니
철천(徹天)35한 너의 한은 실실이 맺혀있고
반반한 너의 눈물은 폭폭이 흘러내린다
너 없는 너의 집에 내 자식 재행(再行)가든
청천(青天)이 태도는 요조가 간데 없고
영외에 새 소식은 연자(燕子)36가 날아든다
동방화촉(洞房華燭)37 없었으니 재행(再行) 간들 내가 알고

재행(再行)이 문상(問喪)되고 삼행(三行)38이 바로더라
어여쁜 내 자식아 재행삼행(再行三行) 다닌 후에
신행(新行)이 법례(法例)이거늘 통분(痛憤)하다 내 자식아
반구일자(返樞日子)39 무슨 일이고 슬프다 우리 사돈(查頓)덕
통곡처량(痛哭淒涼) 하시올 지 동방에 부는 바람
우리 사돈(查頓) 한숨이요 서방에 묻는 비는
우리 사돈(查頓) 눈물이라 오호위재(嗚呼威哉)
내 모르니 시모(媿母)인줄은 어이 알며
자부(子婦)인줄은 어이 알리 행(行)이란 못하여도
납채(納采)는 하였으니 내 며느리 적실(赤實)하고
재배(再拜) 필히 쟁영하다 좋은 산지 가리어내고
어진 날을 가리어 받아 분물40로 명정(銘旌)41을 씻고
모단(毛緞)으로 화려 잡고 명주비단(明紬緋緞)으로 백골(白骨)을 싸서
화례에 굳이 싣고 돌아올 제 우리 사돈(查頓)
마음인들 오직 통분(痛忿) 하시올까 통곡(痛哭)하며
하는 말씀 세상사람 무작하다42
산 자식 신행(新行) 갈 제 울음은 무슨 일이고
죽은 자식 신행(新行)할 제 따라죽지 못하는가
어여쁜 내 자식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산천초목(山川草木) 바라보니 봄을 따라 가겠지만은
불쌍한 내 자식은 이제 가면 언제 올꼬
영창강이 끊어지고 방애산이 무너진들
이내 회포(懷抱) 끊어지랴 오호석재(嗚呼惜哉)라43
어여쁘다 내 마음에 신행(新行)인가 바라더니
정마소리 간 곳 없고 (해석 불가) 소리 무슨 일이고
그 소리 한 마디에 강산(江山)이 적막(寂寞)하고
초목(草木)이 소실(消失)하다 어여쁜 내 자식이
제복(祭服)44 입고 통곡(痛哭)하며 (해석 불가) 따라오며
북망산천(北邙山川)45 돌아드니 의지 없이 우는 (해석 불가)
너를 보고 부러워한다 일후(日後)에 내 자식이
명문(名門)에 취처(娶妻)46하여 백자천손(百子千孫)47 낳은 듯이
낳은 듯이 네 무덤에 축(祝) 이르고 제(祭)를 지내며
사후(死後) 복이 이 아닌가
오늘날 정녕 내세부 볼 것이니 원통(冤痛)하네
애정곡 쓸쓸히 다한 후에
박복(薄福)한 나의 서러움 절절히 다하여라
집 앞에 가는 너를 차마 저대로 못 보내서
두어줄 글 다 일천(一天)즐기 눈물로서 너의 영혼

위로(慰勞)하고 나의 시름 풀려고서 대강만
기록(記錄)하여 시이생시 유명이 있을 진데
아느냐 모르느냐 오호통재(嗚呼痛哉)라
흠사 아무라도 이것을 보고 웃지 마옵소서.
우리쌀넉 말즈 十七곡이 方익서노던
싱각하이 마암이 울적 하나이다
정월은 잉춘초춘 이월은 중춘화춘
송월은 만춘모춘 스월은 초하남풍
지절리라 화익지절 오월은 초복이잉지절
유월은 여천중복 칠월은 초추소유지절
팔월은 중추 가절리라 싱양지절
구월은 모추 천고마비지절 오곡이 등풍
십월은 초동 십이월은 남한설하울
빅별지후로 지우검일 즈송서치 못하와
호점의 직송송 만만 이로서이다
건미심스 시잉춘알이 불화온츠 시익너어
작별지후로 우존인 아득하고 초수오존이
가로막혀 청조가 써어지고 수하의 노즈업서
이만 서신으로 진작날여 서로
반기지 못하이 참기기 하어이나
자시일기 심히춌운뒤 밤을짜라 창외
송보트이 월식은 명낭하야 오동의
두건우려 심스 돌디업서 월궁의
나련학은 나라조타 나도날기 이시며
나라가서 보며 을마나 조캐노
一서쪽디초밤건시빅넘검유과
二서쪽 육탕북어피문어가오리합조도적물익어적
三서쪽 고소리도릭공기음미나리
四서쪽 건어시침기기형조반편
五서쪽 술술탕반탕반조보님싱신은
치월초여드리날조모싱신은송월초손날
밭어버이싱신은유월十三일안어버이싱
신은시월초열날노변닉선조중우
암선싱동춘선싱두사람이라조선익서

[각주]

- 1) 지전(紙錢) : 돈 모양으로 오린 종이. 죽은 사람이 저승 가는 길에 노자(路資)로 쓰라는 뜻으로 관 속에 넣음.
- 2) 오호통재(嗚呼痛哉) : ‘아, 비통하다.’라는 뜻.
- 3) 오호애재(嗚呼哀哉) : ‘아, 슬프도다.’ 슬플 때나 탄식할 때 씀.
- 4) 박명(薄命) : ①복이 없고 팔자가 사나움. ②수명이 짧음.
- 5) 원정(原情) : 사정을 하소연함.
- 6) 별시(別時) : 이별할 때.
- 7) 청천(青天) : 푸른 하늘.
- 8) 잔명(殘命) : 얼마 남지 않은 쇠잔한 목숨.
- 9) 무무(訥訥)한 : 교양이 없어 말과 행동이 서투르고 무식한.
- 10) 연광(子子) : 젊은 나이.
- 11) 고문명족(高門名族) : 부귀하고 지체 높은 명망 있는 집안.
- 12) 천정배필(天定配匹) : 하늘이 정한 부부.
- 13) 적실(的實)하다 : 틀림이 없이 확실하다.
- 14) 초행(醜行) : 신랑이 초례를 지내기 위하여 처가로 감.
- 15) 치송(治送) : 짐을 챙겨서 길을 떠나보냄.
- 16) 일희일비(一喜一悲) :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슬퍼함.
- 17) 육례(六禮) :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혼인의 여섯 가지 예법. 납채(納采),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폐(納幣), 청기(請期), 친영(親迎)을 이룸.
- 18) 시부(媿父)님 : 시아버님.
- 19) 납채(納采) :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혼인을 구함. 또는 그 의례.
- 20) 인간대사(人間大事) : 인륜대사(人倫大事). 사람이 살아가면서 치르게 되는 큰 행사. 혼인이나 장례 따위를 이룸.
- 21) 현철(賢哲) : 어질고 사리에 밝음.
- 22) 자부(子婦) : 며느리.
- 23) 병색(病色) : 병든 사람의 기색이나 얼굴빛.
- 24) 해로(偕老) : 부부가 한평생 같이 살며 함께 늙음.
- 25) 생면(生面) : 처음으로 대함.
- 26) 영악(獍惡) : 매우 모질고 사나움.
- 27) 상반(相半) : 서로 절반씩 어슷비슷함.
- 28) 병침(病寢) : 환자가 누워있는 침실.
- 29) 소치(所致) : 어떤 까닭으로 생긴 일.
- 30) 겁화(劫火) : 세상이 파멸할 때 일어난다고 하는 큰불.
- 31) 반죽강 섞은 비 : 순 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이 구의산에서 죽은 순임금의 시신을 확인한 뒤 흘린 피눈물이 소상강으로 흘러들어갔고, 강가에 서식하고 있는 참대나무에 얼룩무늬를 남기게 되니 이를 세인들은 '소상반죽(瀟湘斑竹)'이라고 불렀음. 여기에 나오는 '반죽'과 '강은' 이 '소상반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 32) 아황여영(娥皇女英) : 중국 고대의 임금 요(堯)의 두 딸. 자매가 모두 순(舜)에게 시집갔는데, 순이 천자가 되자 아황은 후(后)가 되고 여영은 비(妃)가 됨. 그 후 순이 죽자 강에 빠져 죽어 상군(湘君)이 됨.
- 33) 수유(受由) : 말미를 받음. 또는 그 말미.
- 34) 부부유별(夫婦有別) : 오륜(五倫)의 하나. 남편과 아내 사이의 도리는 서로 침범하지 않음에 있음을 이룸.
- 35) 철천(徹天) : 하늘에 사무친다는 뜻으로, 두고두고 잊을 수 없도록 뼈에 사무침을 이르는 말.
- 36) 연자(燕子) : 제비.
- 37) 동방화촉(洞房華燭) : 동방에 비치는 환한 촛불이라는 뜻으로, 혼례를 치르고 나서 첫날밤에 신랑이 신부 방에서 자는 의식을 이르는 말.
- 38) 삼행(三行) : 신랑이 세 번째로 처가에 인사하러 감. 또는 그 인사.
- 39) 반구일자(返樞日子) : 객지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고향이나 제집으로 보내는 날짜.
- 40) 분물 : 분을 바를 때에, 분을 개어서 쓰는 물.
- 41) 명정(銘旌) : 죽은 사람의 관직과 성씨 따위를 적은 기. 일정한 크기의 긴 천에 보통 다홍 바탕에 흰 글씨로 쓰며, 장사 지낼 때 상여 앞에서 들고 간 뒤에 널 위에 퍼 묻음.
- 42) 무작하다 : 무지하고 우악하다.
- 43) 오호석재(嗚呼惜哉)라 : ‘아, 애석하구나.’
- 44) 제복(祭服) : 제향 때 입는 옷.
- 45) 북망산천(北邙山川) : 무덤이 많은 곳이나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곳을 이르는 말. 중국의 베이망 산에 무덤이 많았다는 데서 유래.
- 46) 취처(娶妻) : 아내를 얻음, 혹은 장가를 감.
- 47) 백자천손(百子千孫) : 많은 자손.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